

다산포럼

송재소



‘적벽부(赤壁賦)’의 작자로 널리 알려진 송나라 때의 문호(文豪) 소동파(蘇東坡)의 시에 ‘녹군현(綠筠軒)’이란 시가 있는데 지금도 음미해볼 만하다.

“식사에 고기가 없을 수는 있어도(可使食無肉) / 사는 곳에 대나무는 없을 수 없네(不可居無竹) / 고기 없으면 사람을 아위게 하지만(無肉令人瘦) / 대나무 없으면 사람을 속되게 한다오(無竹令人俗) / 사람이 아위면 살찌울 수 있으나(人瘦尚可肥) / 선비가 속되면 고칠 수 없는 법(士俗不可醫) / 옆 사람이 이 말을 비웃으면서(傍人笑此言) / 고상한 것 같으나 여러 석다 말하지만(似高還似癡) / 대나무 앞에 두고 고기 싹쓸 먹는다면(對君此物仍大嚼) / 세상에 어찌 양주학이란 말 있었겠는가(世間那有揚州鶴)”

이 시에 나오는 ‘양주학’이란 말의 유래는 이렇다. 옛날에 손님들이 서로 노닐면서 각자

자신의 소원을 말했는데, 어떤 자는 양주 자사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자는 재물이 많기를 원하고 또 어떤 자는 학을 타고 하늘에 오르기를 원하였다.

그러자 그 중 어떤 자가 말하기를 “나는

‘양주학(揚州鶴)’

허리에 십만 관(貫)의 돈을 차고 학을 타고서 양주의 하늘을 오르고 싶다”라 했다고 한다.

양주는 자고로 살기 좋은 곳으로 이름난 도시이다. 그러나 이 말은, 양주자사라는 관직과 십만 관의 돈과, 학을 타고 하늘에 오르는 신선이 되었다는 욕망을 모두 가지려는 것으로, 실현 불가능한 욕심을 나타내는 용어로 쓰인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누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소동파의 시에서는 고기와 대나무를 대비시키고 있다.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관직을 가진 돈 많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사람이 동시에 대나무와 같은 고고한 품성을 지닐 수 없다는 말이다. 고기와 대나무를 다 가지는 것은 양주학과 같이 실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하려면 대나무를 택하겠다는 것이 소동파의 생각이다. 왜냐하면 대나무가 없으면 사람이 속되 고 사람이 한 번 속되면 고칠 수 없기 때

수 없다는 것이 위 시의 내용이다. 고기를 먹으려면 재산을 모아야 하는데 재산 모으기에 힘쓰다 보면 맑고 끈은 품성을 기르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산의 축성이 원래 그러한 것이다.

일국의 장관이면 옛날의 군자에 해당하는데, 새 정부의 장관들은 어찌된 그리도 한결같이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모를 일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 많은 것이 힘일 수는 없지만, 일반 서민들이 위화감을 느낄 정도의 재산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느 여성 장관 후보자의 경우와 같이, 유방암 검사에서 ‘깨끗하다’는 진단을 받은 기념으로 아파트 한 채를 살만큼 많은 재산을 모았다면 어느 거를 먹고 싶은 품성을 닦을 틈이 있었겠는가? 아마도 이들은 대나무 심는 일보다 고기 먹는 일에 더 많은 공력을 들였을 것임이 틀림없다. 이들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서도 깨끗한 마음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항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세상에 어찌 양주학이란 말이 있었겠는가”

〈성균관대 교수·다산연구소 제6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AI 전북 확산에 비상 걸린 지역 축산농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전북 김제 읍지면에 이어 정읍 영원면에서 AI 발생이 확인된 데 이어 인근 정읍 고부면 오리 농장의 폐사 원인도 고병원성 AI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3월 신고된 정읍 영원면 소재 오리농장의 폐사 원인이 고병원성 AI인 것으로 최종 판명됐다. AI가 발생한 곳이 김제의 양계농장을 포함해 모두 2곳으로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지난 6일 폐사 신고가 접수된 정읍 고부면의 오리 농장에서도 AI 바이러스가 검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고병원성 AI가 검출될 수 없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문제는 전남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다. 2차 발생 농장인 정읍 영원면 오리농장 수송차량이 나주, 해남, 구례, 무안, 영암 등 전남지역 5개 시·군, 11개 가금류 농장을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송차량이 무방비 상태로 가금류

농장과 도로를 드나들었다는 점에서 전남지역으로의 추가 확산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정읍의 AI 발생 농장에서 오리를 들여온 나주 도축장의 오리농장 폐사 원인이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커 지역 축산농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남도는 AI가 발생한 정읍 농장과 관련된 34개 농장에 대해 1차 간이검사를 한 결과 현재 음성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했으나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 AI는 전파력이 강하고 차량이 광범위하게 전남지역을 출입했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확산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AI가 전남까지 확산하면 가뜩이나 사료 값 인상 등에 어려운 지역농가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방역당국은 집중적인 예방 및 방역활동 등을 통해 전남으로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무엇보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고병원성 AI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한국인 최초 우주비행 성공을 기원한다

한국의 첫 우주인 이소연(29)씨가 드디어 우주로 떠난다. 광주 출신의 이씨는 8일 오후 8시16분27초(한국시간) 소유스 TMA-12 우주선에 탑승, 우주비행에 나서게 된다. 온 국민의 이목은 우주선이 발사되는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 쏠려 있다.

이씨는 지구로부터 약 350km 떨어진 국제우주정거장에서 18가지의 과학실험을 수행하고 우주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된다. 임무가 끝나면 오는 19일 미국 여성 우주인 페기 위스, 러시아 우주인 유리 말렌첸코와 함께 지구로 귀환한다. 우리나라의 우주 개척사에 새 장을 여는 것이다

비록 러시아의 우주선에 탑승해 선진국의 첨단기술로 만들어진 국제우주정거장에서 활동하지만 개인은 물론 국가의 영예가 아닐 수 없다. 우주비행에 성공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35번째로 우주인을 배출한 국가, 11번째로 우주과학 실험을 한 국가가 된다. 이씨 개인은

475번째 우주인이자 49번째 여성 우주인으로 기록된다.

이씨의 비행은 한국인의 우주에 대한 도전과 탐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 틀림없다. 우리의 우주개발은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 일본 등에 비해 매우 늦다. 우주개발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크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우리가 후발 주자이지만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고층 외나로 도에 우주센터를 건설하는 등 우주 개척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 안에 고층 우주센터에서 국산 과학기술 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해 세계 9번째의 ‘스페이스 클럽(우주 선진국)’ 가입을 노리고 있다.

한국인 첫 우주비행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은 뜨겁다.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우주개발 선진국에 비해 늦었지만 명실공히 ‘우주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소연씨의 우주비행이 성공하길 기원한다.

無等鼓

“베어스틴스는 있어라. 버벡기와 폴슨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무시해라. 어떤 해지펀드가 붕괴할 지보다 쌀값에 신경을 써라”

미국의 저명한 경제전문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케이 지난 6일 블룸버그 통신에 기고한 칼럼 내용이다.

금융위기가 쌀값 폭등 등 곡물위기가 훨씬 더 큰 충격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다. 특히 그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30억명의 주식인 쌀값 상승은 아시아, 아프리카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곡물위기는 곳곳에서 이미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모리타니, 세네갈에 이어 이집트까지 물가 폭등으로 인한 폭력사태와 시위로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군인들이 쌀 공급을 감시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인도와 중국, 이집트 등 주요 쌀 수출국이 외국에 대한 쌀 판매를 금지하거나 쌀 수출세를 부과하고, 베트남은 쌀 수출 금지령을 내리고 있다. 쌀값이 오르면 쌀 수입국도 쌀값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쌀값이 오르면 쌀 수입국도 쌀값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쌀값이 오르면 쌀 수입국도 쌀값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쌀 샌드위치



상 최악의 식량난이 우려되고 있다.

어렵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곡물 자급률이 25.3%로 29개 OECD회원국중 26위다. 쌀을 제외한 경우 5%도 넘지 못한다. 다행히 쌀 자급률이 96%에 달하지만 그렇다고 세계적 식량난에 맘 놓고 있을 수순이 아니다.

미국의 경제전문가까지 쌀값 걱정을 하고 있는 판에 7일 쌀샌드위치가 출시됐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쌀 소비 진작을 위한 아이디어로 제안한 것이 제품화까지 이어진 모양인데 쌀 소비 장려하는 정부, 심히 걱정된다. /기현호 경제부장 khhh@kwangju.co.kr

NGO 칼럼

정명숙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이다. 청소년들이 마음 편히 놀고 즐기며 학교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있고, 성인 범죄를 방목할 정도로 갈수록 흉포화·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서는 ‘안양 초등학교 납치 살해’, ‘일산 초등학교 납치미수’ 등 성인에 의한 강력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4천50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의외의 답변 자료를 받았다.

우리는 가정과 학교, 사회와 국가 그리고 시민단체의 유기적 연대활동의 중요성을 다시금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는 그들에게 도덕적 판단능력과 옳은 가치를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잘 지도해야 할 것이다.

경찰과 학교 등 관계기관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나름의 대책을 마련, 적극 나서고 있으나 실질적인 대안이 절실하다는 얘기가. 청소년폭력이 난무하고 입시지옥 속에서 수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고통받고 있다.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가해학생들 또한 자라나는 우리의 자식들로서 따스한 손길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 폭력근절을 위해서는 단순히 학교 폭력이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인권과 공교육의 문제점, 유관기관 간 연계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폭력근절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일이다. 이에 앞서 학교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등에게 사전 예방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지금이 아말포 꿈과 사랑을 청소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시금 마음을 모을 때이다.

〈광주청소년폭력예방재단 실장·사회복지학 박사〉

청소년 폭력 근절 마음을 모으자

조사 결과를 보면 몇 가지 새로운 징후를 볼 수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4천500명 중 42%에 달하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둘째,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학생에게 다른 학생들을 때리고, 괴롭히며 따돌리는 이유’를 물었더니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장난(42%)이나 특별한 이유가 없다(27%)’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내놨다.

셋째, ‘학교폭력을 지켜본 학생들의 60%는 이를 보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거나 모르는 척 했다’고 응답했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두렵고,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폭력사건이 터지면 방관자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새로운 징후에서

‘학교폭력 예방’ 가정서도 정기 교육을

중학교 다니는 이웃집 아이가 학교에서 다른 아이에게 맞아서 이틀동안 학교를 안가겠다고 버티고 그 부모가 속을 끓이다 학교를 찾아가 모양이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가해 학생의 부모가 “뭔가 잘못 했으니까 때린 거 아니냐”며 오히려 화를 내더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학교 측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은근히 학교 측의 지도책임을 돌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들 들은 피해 학생의 부모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설명 아이들 이야가 절이 들지 않아 싸울 수 있다지만 가해 부모의 이같은 행위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학교에서 상담사가 가해 학생을 지도하고 그 결과를 교장 책임하에 부모에게 지도명령을 내리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유난히 가해 학생 부모들이 학교폭력에 관대한 경향이 있다. 가해학생 부모들에게 외국의 사례처럼 무리적으로 폭력예방 교육을 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입학식 때나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가정통신문에 예방교육용 학부모 지침과 자녀 지도 요령 등을 안내하면 어떨까.

▲임정화·광주시 동구 총장로2가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로 지급합니다.



동물원은 멋진 곳



입장료 어른 1천500원, 어린이 700원, 30명 이상 단체일 때는 40% 정도 할인된다. 6세 미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 어린이 날은 어린이들 모두 무료 그리고 365일 무휴, 이 것이 동물원에 입장할 수 있는 조건들이다.

요즘 시세로 치면 2~4시간 정도의 알찬 나들이를 위해 이 정도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그리 비싼 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대신 함께 있는 놀이공원을 함께 이용하려면 그 비용은 엄청나게 올라간다. 놀이공원이 거의 개점휴업에 들어가는 평일이 꼭 동물원에 놀러 오는 사람들이었다.

평소 동물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나 마니아층들은 주로 혼자서 카메라와 먹잇감을 들고 찾아온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 남녀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선용된다. 그들을 보고 있노라면 ‘참 멋진 곳에서 데이트를 하는구나’라는 생

각이 든다.

그 청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필자 또한 주저없이 저렴한 의미 있는 동물원을 선택할 것이다. 언제나 사람들이에게 평화롭게 다가갈 수 있는 주제는 바로 자연과 동·식물이다.

그리고 또 많이 애용하는 사람들은 ‘미시’라 불리는 것 아이를 낳은 젊은엄마들이다. 이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한껏 멋을 부리고 유모차를 대동하고 동물원에 나들이를 한다. 조기 교육의 효과도 있으려나와 마음껏 운동도 하면서 수다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바로 이 동물원에서 찾은 것이다.

동물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물은 이외로 기린과 사슴이다. 이들이 인기 있는 이유는 사진 속에서처럼 관광객들과 주저 없이 품의 대화를 나누기 때문이다.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농산물 유통·가격 왜곡하는 끼워팔기 규제해야

시장을 보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에 갔더니 소세지를 파는 코너에 파랑고 예쁜 호박이 함께 묶인 것을 봤다. 햄을 구입하면 호박을 덩으로 끼워주는 미끼 상품이었다.

주부 입장에서 볼 때 무엇인가 덩으로 끼워주니 샅피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좋다. 하지만 농촌에서 농사짓는 부모님을 생각하니 농민이 유쾌하지만은 않았다. 농민들이 피땀 흘려 키운 농작물이 이렇게 미끼 상품으로 팔리며 천대받는 것 같고 그 피해 또한 고스란히 농민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대형 유통업체에서 미끼상품으로 끼워 팔려면 그만큼 농산물을 싸게 사들여야 할 것

이다. 그러면 농산물을 납품하는 도매업자들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농촌에서 농산물을 구입할 때 최대한 값을 깎아 구매하려 할 것이다.

농산물의 경우 대부분 가격 결정이 도매 시장 경매로 이뤄져 값이 오르내릴 때마다 소비자들의 구매가 크게 편차를 보인다. 특히나 요즘 대형 유통업체들이 도시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들이 농산물 끼워팔기를 할 경우 농민들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농산물 유통과 가격을 왜곡하는 이러한 끼워팔기 행위는 적절히 규제돼야 한다.

▲정다워·광주시 광산구 북동동

| | | | |
|--|---------------------------------|-------------------------|---|
| 光 卍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회장 許宰浩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 논설실장 金東永 | 편집국장 申港樂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제11호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1 | | | |
|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 | www.kwangju.co.kr | |
|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 사회 2부 2200-619 (F A X 227-0118) | 경영지원국 2200-511 |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
| 편집부 2200-629 | 문화생활부 2200-626 | 광고매케팅국 2200-521 |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
| 정치부 2200-616 | 여론제작부 2200-628 | 정세부 2200-617 | 체육팀 2200-627 |
| 경제부 2200-617 | 체육팀 2200-627 | 사회1부 2200-618 | 사진부 2200-690 |
| (F A X 222-4267) | 조사부 2200-570 | *구독료 월정액 8,000원 1부 400원 | |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